

중동의 ODA(공적개발원조) 정책과 방향 : 터키 ODA를 중심으로*

김 영 철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HK교수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터키의 ODA 정책과 전략
- III. 터키 ODA 관련 정부 및 민간기관
- I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1. 연구범위와 목적

중동지역에서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후 ODA)는 일부 중동 산유국들과 터키와 같은 신흥공업국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동지역의 원조 공여국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UAE)와 터키 정도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동지역의 이들 공여국들 역시 ODA 수여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서구의 ODA공여국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동지역의 ODA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동지역에서 터키정도만이 ODA규모와 내용면적인 측면에서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가입에 근접해 있으며 그 지원 범위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동 산유국의 공적원조는 각국의 재정부가 비공식으로 집행하거나, 국가 발전 기금 형태로 국가원조기관을 통해

* 이 글은 2011년 7월 한국중동학회 논총 32-1호에 게재된 “터키의 ODA(공적개발원조) 정책방향과 기여외교”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기금’(Saudi Fund for Development), 쿠웨이트의 ‘쿠웨이트 펀드’ 등과 같은 산유국들의 석유기금들이 ODA 프로그램 일환으로 수혜국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형태로 ODA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이들 산유국들의 공적원조가 석유가격 변동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이지 못한 원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일부 수혜국들은 이들 산유국들의 지원 금액이 꾸준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중동 산유국들의 ODA는 종교적 동기와, 아랍-이슬람권의 단결 이라는 목적이 많이 내재되어 있어 그 범위가 제한적이기도 하다. 일례로 쿠웨이트의 ‘쿠웨이트 펀드’는 아랍국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주로 하고 있으며, 비아랍지역의 경우는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다(금상문 2010). 사우디아라비아의 주 원조 대상 국가 또한 이슬람국가들로 주로 북 아프리카 아랍 국가들이나, 팔레스타인,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등과 같은 서남아시아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모든 중동 산유국들의 원조대상국이 아랍과 지리적으로 근접하거나 종교-문화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국가들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유가 시대였던 1970년대말과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동 산유국들은 GNI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의 ODA를 공여해 왔으나 유가하락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해 최근 중동 산유국들의 공적원조는 급격히 줄어든 상태이다. 따라서 중동 산유국들의 ODA는 아직 체계적인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부 석유기금¹⁾을 통해 주변 인접 이슬람국가들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재정지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 또한 앞서 언급한 바처럼, 공적원조가 주로 아랍민족간의 유대관계 및 단결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한국의 ODA 상황과는 매우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중동지역 국가 중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한국과 같이 신흥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터키의 ODA를 중심으로 중동지역의 ODA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또한 터키와 같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G20의 중진국 국가로서 최근 ODA분야가 외교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어 다른 여느 중동국가 사례보다 많은 유의미한 내용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터키는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ODA정책을 펼치고 있어 대외원조가 성장잠재력이 큰 외교의 미개척 분야라 생각하고 있다. 한국 또한 터키와 비슷한 규모의 ODA를 제공하며 최근 이와 관련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는 비교사례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사우디기금(Saudi Fund for Development)의 경우 1974년에 설립되어 41개 아프리카 국가와 25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왔다. 한때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까지 만해도 고유가로 인해 사우디 ODA 금액이 480억 달러에 달하며, GNI 대비 ODA규모도 4.2%로 당시 모든 DAC회원국들 보다 큰 규모의 ODA를 했다. 하지만 이후 급격한 유가하락과 지역정세 불안정성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ODA는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현재 GNI대비 0.2% 정도의 원조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조내용 또한 금융 및 재정지원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통 상환기간은 10년 거치 50년 상환 조건이다.

2) 중동 산유국의 공적원조가 단기적이며 소모적인 분야에 많이 투자된다고 평가되고 있어 중동 산유국 ODA정책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표 1〉 중동 산유국의 GNI 대비 ODA규모 비교 추이

연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DAC
1975~79	5.89	7.57	8.03	0.33
1980~84	3.78	4.63	1.87	0.36
1985~89	1.58	1.57	0.07	0.35
1990~94	2.82	1.31	1.14	0.32
1995~99	0.92	0.16	0.14	0.24
2000~04	0.25	0.71	0.19	0.24
2005	0.24	0.31	n,a	0.33
2006	0.14	0.55	n,a	0.31
2007	0.09	0.52	n,a	0.28

출처: KIEP, 지역경제 포커스 10-18호, 2010.

2010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을 하여 그 어느 때보다 ODA 문제가 주요 외교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한국으로서는 ODA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 문제로 다가서고 있다. 결국 한국은 ODA를 어떻게 우리의 특성과 국익에 맞게끔 활용하느냐에 국가적 지식역량이 모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OECD회원국이자, G20회원인 터키의 ODA사례는 다른 어느 중동국가 사례 보다 한국에 시사 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교정책 수행도구로 군사력, 경제력, 과학적 역량, 문화자원, 경제원조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과 방법들이 쓰이고 있다. 이들 중 ODA라고 불리는 경제원조는 주변 이웃국가들이나 경쟁국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서의 공여국 이미지와 국익을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외교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Tuman and Strand, 2007). 따라서 ODA를 활용한 기여외교는 공여국과 수혜국간의 협력 틀을 제공하여 상호이익을 취하면서도 주변 경쟁국들의 우려나 견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외교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리적으로 중동-중앙아시아-유럽을 잇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ODA정책과 기여외교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역량을 증대하고 있는 터키의 ODA 사례를 연구범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90년대 이후 터키의 ODA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어떻게 ODA를 외교역량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ODA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정부에 제공하는 공여 및 양허적 차관을 의미한다. 따라서 ODA는 인도적 지원 또는 정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ODA는 단순히 수원국만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잠재적 시장이자 협력파트너인 개도국에 대한 확실한 장기적인 투자이자 공여국의 성장동력 창출과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터키의 ODA정책과 제공현황을 알아보면서 어떻게 터키가 ODA를 중요한 외교정책으로 활용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터키의 ODA 지원분야와 지원지역 및 국가를 살펴봄으로써 터키 ODA정책의 전략을 연구할 것이다. 또한 터키 내

ODA를 제공하는 민간(NGO) 및 정부단체들을 조사하여 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조율되고 정책을 펼치는지도 조사할 것이다. 이를 위해 터키의 ODA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하는 ‘터키 국제협력 및 발전청’(TIKA)에 관해 자세히 알아 볼 것이다.

II. 터키의 ODA 정책과 전략

1. 현실주의적 ODA 접근과 터키의 ODA 연혁

최근 많은 국가들은 ODA가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공여국의 ODA 자원배분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공여국의 이해’의 측면에서는 공여국의 수원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 확대가 ODA의 핵심적 동기로 분석되어 왔으며, ‘수원국의 필요’의 측면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ODA의 주된 목적으로 파악되어 왔다(Maizels and Nisanke,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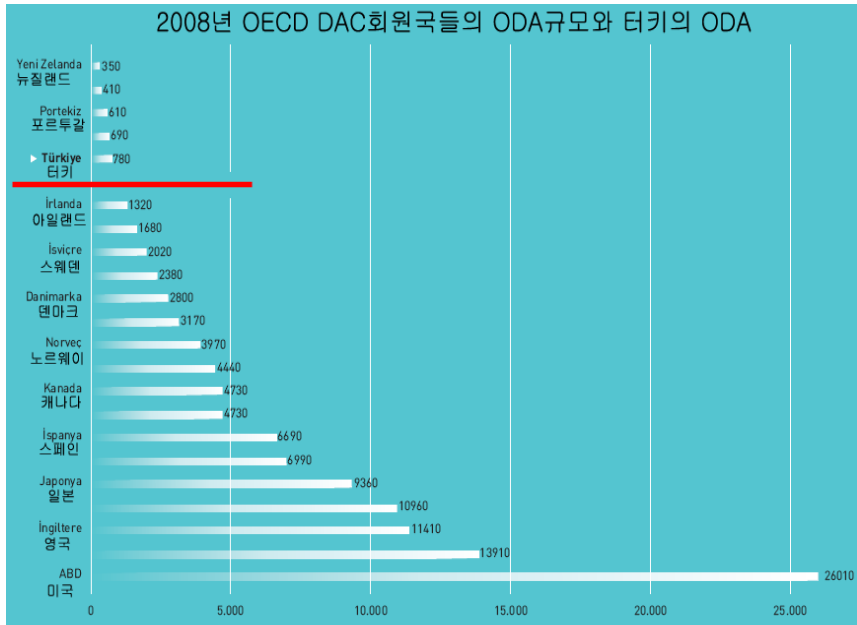
ODA결정 요인에 관한 ‘공여국의 이해’의 모델은 국제관계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현실주의 이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실주의는 경제학적 인간관을 국가행위의 차원으로 확장시켜, 국가란 본성적으로 이해를 극대화하려는 행위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최초 공적원조와 기여외교라 할 수 있는 1948년의 마셜계획(Marshall Plan)도 공여국인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과 지역적 이해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당시 유럽에서의 공산주의 확산저지와 자본주의 시장 보호라는 전략 아래 터키를 비롯한 유럽을 상대로 막대한 원조외교를 실시하였다(USAID, 2002). 터키는 1947년 유럽에서 남하하고 있는 공산주의와 소비에트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지정학적 요충지로 인식되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원조를 받았고, 이후 냉전기간 내내 많은 서방 국가들의 공적원조를 받았다. 메이즐스와 니상크도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공적원조와 기여외교를 분석한 연구에서 양자원조의 경우에는 공여국의 이익이 크게 발현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Maizels and Nissanke, 1984). 버틀레미와 티치트도 OECD 국가들 중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지난 20여 년간 ODA자료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ODA와 기여외교와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기도 했다(Berthelemy and Tichit, 2002). 그들은 연구에서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이 ODA 배분과정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ibid.).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ODA를 펼치고 있는 일본 역시, 많은 일본의 ODA배분 과정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에 의해 일본의 경제적 이해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ODA가 추진했다고 분석되고 있다(Kuramoto, 2007; Tuman and Strand, 2007).

같은 맥락에서 터키 또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ODA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OECD와 G20 회원국이며 세계 15위 교역국인 터키 역시 자신의 지정-지경학적 이해 때문

에 관심 지역을 중심으로 ODA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차 대전 후 터키는 한국과 같이 미국의 주요 수원국으로 1947년 미국 투르먼(Truman) 정부의 투루먼선언(Truman Doctrine)과 마셜계획(Marshall Plan)에 의해 대규모 군사 및 경제원조를 받았으며 이후 냉전기 동안 서방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원조를 받았다. 냉전 이후에도 터키는 유럽연합 가입과 관련된 정치-사회개혁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럽연합으로부터 많은 원조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터키는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다양한 정치-사회-교육 개혁 때문에 2008년 기준 유럽연합 대외원조의 66%를 지원받고 있는 ODA 수혜국이다.³⁾ 다시 말해 유럽연합은 유럽 기준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시스템을 터키에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의 원조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터키사회의 현대적 개혁과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ibid.).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과정으로 인해 터키는 수치상으로 많은 ODA를 받는 국가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터키는 이에 못지 않게 터키의 전략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ODA를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터키의 ODA는 1970년 원조관련 법규가 준비되면서 시작되었지만 그 규모와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1970년대의 터키의 공여사업은 주변 중동국가의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으나 그 규모는 미미했다. 터키가 본격적인 공여국으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시작한 시기는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터키국제협력 및 발전청’(Türk İşbirliği ve Kalkınma Ajansı, TİKA, 영문명 Turkish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ICA)이 총리실 직속기관으로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련방 붕괴 이후 터키는 냉전기간의 수동적 외교에서 벗어나 활발한 외교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특히 인종적,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인접한 중앙아시아, 발칸, 카프카스 지역의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외교정책을 펼쳤다. 터키는 이 지역에서 튀르크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증진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ODA 정책을 이용했으며, 이를 통해 역내 국가들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증진하고자 했다. 오늘날 터키가 카프카스, 중앙아시아, 발칸지역에서 다른 어느 서구 국가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터키는 전방위적 지원정책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터키의 위상과 역할을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이 결과 현재, 중앙아시아, 카프카스, 발칸지역의 많은 신생국가들은 터키를 주요 동맹국 및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3) <http://www.globalhumanitarianassistance.org/countryprofile/turkey>, 2011년 2월 20일 접속



출처: TİKA (2009), 2008 Türkiye Kalkınma Yardımları Raporu.

2008년 OECD자료에 의하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과 함께 터키의 ODA는 10.2%가량 증가하였다(TİKA, 2009). 2008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터키는 비DAC 회원국임에도 포르투갈이나 뉴질랜드와 같은 DAC회원국들보다 많은 780백만불 달러의 ODA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했다. 2009년 주요 OECD국가들의 ODA/GNI(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비율을 비교해 보아도 터키는 2009년 11월에 DAC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보다 높은 GNI 대비 ODA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9년 터키의 GNI 대비 ODA 비율은 0.12%로 0.10%의 한국보다 높다. 물론 OECD의 대표적 공여국 모임인 DAC 회원국들의 평균치인 0.3%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지만 터키의 경제규모와 소득수준(GNP)을 고려하면 괜찮은 정도라 할 수 있다. 또한 터키는 향후 꾸준히 ODA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DAC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 OECD 국가들의 ODA/GNI 비율(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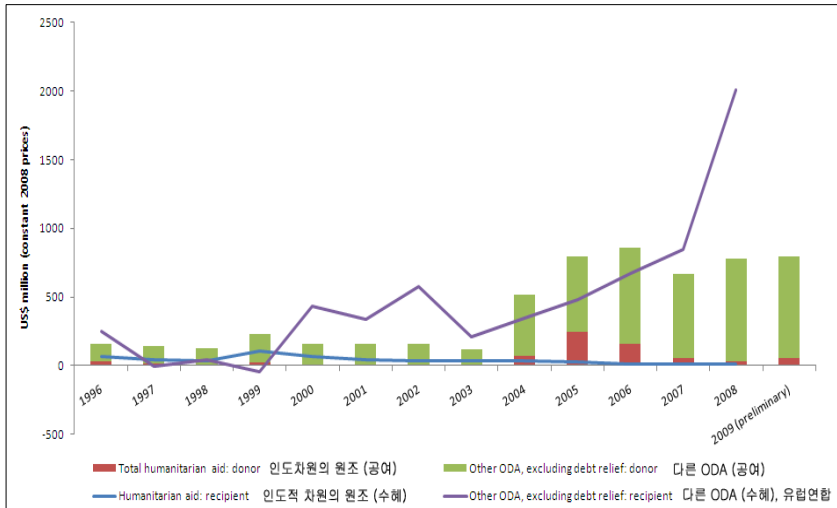
ODA/GNI	0.5 이상	0.4 이상	0.3 이상	0.2 이상	0.2 미만
국가군	노르웨이(1.06)	스위스(0.47)	독일(0.35)	호주(0.29)	그리스(0.19)
	스웨덴(1.02)	프랑스(0.46)	아이슬란드(0.33)	뉴질랜드(0.29)	일본(0.18)
	룩셈부르크(1.01)	스페인(0.46)	벨기에(0.3)	포르투갈(0.23)	이탈리아(0.16)
	덴마크(0.88)		캐나다(0.3)	미국(0.20)	체코공화국(0.12)
	네덜란드(0.82)				터키(0.12)
	벨기에(0.55)				한국(0.10)
	핀란드(0.54)				헝가리(0.09)
	아일랜드(0.54)				폴란드(0.08)
	영국(0.52)				슬로바키아(0.08)

출처: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ODA_DONOR

터키는 경제규모와 국민소득에 비해 한국보다 많은 ODA를 제공함으로써 기여외교, 자원외교, 시장창출 등의 현실주의적 목적을 위해 ODA를 주요 외교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터키와 국민총생산(GDP) 규모가 비슷한 한국으로서는 터키의 이와 같은 행보와 결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터키는 한국과 다르게 현재까지도 유럽연합 가입이라는 과정을 준비하면서 유럽연합의 많은 원조와 지원을 받기도 하는 나라이다. 어쩌면 많은 원조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ODA를 제공하고 있는 터키의 사례는 매우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터키는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다양한 사회, 교육, 정치개혁을 위해 많은 원조를 받고 있어 단지 통계자료를 본다면 터키는 원조 수혜국으로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터키는 90년대 이후 꾸준한 ODA정책을 펼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OECD DAC회원국에 버금가는 ODA를 제공하는 공여국이기도 하다. 특히 2004년 이후 많은 ODA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 국제경제 위기에도 꾸준히 그 양을 증가시키고 있어 성장세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터키의 인도적 차원의 원조 수혜는 1999년 이즈미트 대지진으로 약간 늘어났었지만 그 이후 거의 없는 상태이다. 비전통적 원조국가들⁴⁾ 중에서 터키의 ODA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비전통적 원조국가들은 OECD회원국이 아닌 발트해의 유럽국가들, 한국, 멕시코, 터키, 폴란드, 체코와 같은 OECD 비 DAC회원국들, 그리고 아랍과 중동 국가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터키의 ODA 공여 및 수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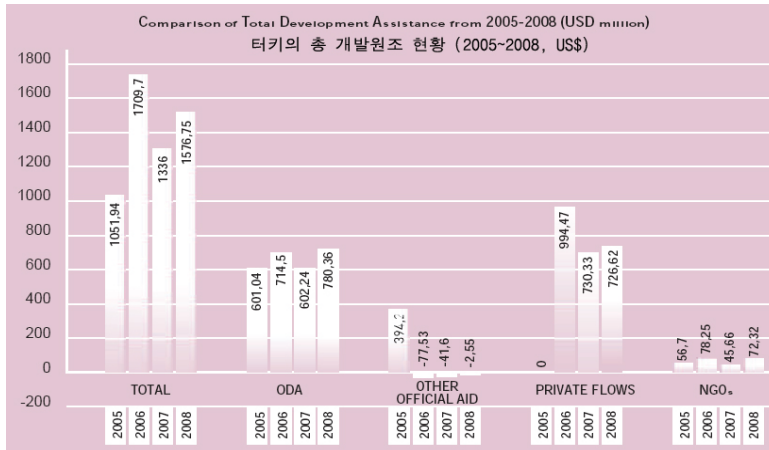


출처: Global Humanitarian Assistance, Turkey overview,
<http://www.globalhumanitarianassistance.org/countryprofile/turkey>

최근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터키 개발원조 현황을 살펴보다라도 터키의 개발원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2009년에 조사된 2008년 터키의 총 개발원조액은 미화 약 15억7천만불(1576.75 million \$) 수준으로 이중 ODA분야가 약 7억8천만불(783.36million \$)을 차지하고 있으며 NGO단체의 원조가 약 7천2백만불(72.32 million \$)에 달하고 있다. 아직 정식적인 통계자료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제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10년 터키는 8.1%라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어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인 3.8%의 두 배에 달하는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⁵⁾ 터키는 이와 같은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터키는 최근 PIGS사태로⁶⁾ 위축된 유럽연합을 상대로 그동안 오랜 투자를 해온 터키의 전략적 지역에서의 입지 강화를 통해 유럽에서 터키의 위상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터키는 예전보다 더 적극적인 ODA정책을 펼쳐 최근에는 중동, 중앙아시아, 카프카스 지역을 넘어 아프리카에도 많은 ODA를 제공하여 국제무대에서의 터키의 위상강화를 확대하고 있다.

5) <http://www.invest.gov.tr/en-US/infocenter/news/Pages/140111-world-bank-turkey-growth-rate-world-average.aspx>
 2011년 2월 20일 접속.

6)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PIGS)의 재정 위기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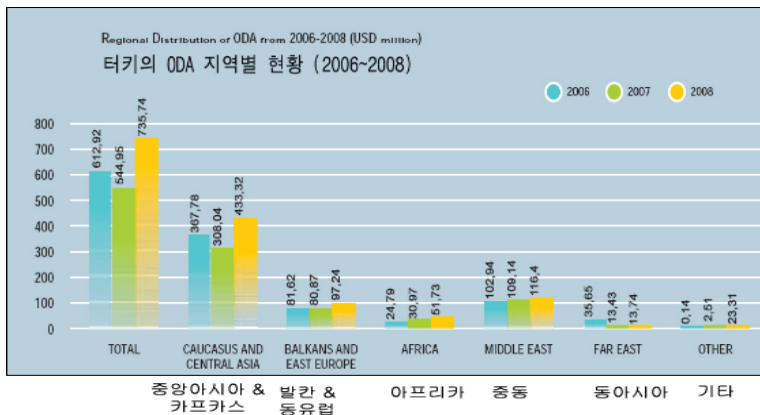


출처: TİKA (2009), 2008 Türkiye Kalkınma Yardımları Raporu.

2. 터키 ODA의 특징

1) 터키의 국가별 ODA 배분 현황과 특징

앞서 언급한 것처럼, 터키의 ODA는 1992년 터키국제협력 및 발전청(TİKA)이 총리실 직속기관으로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TİKA는 총리실 직속기관으로 설립되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TİKA는 소련붕괴로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에 등장한 튀르크계 국가들과 이후 유고연방의 해체로 등장한 보스니아, 코소보와 같은 이슬람 성향의 국가들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터키 공화국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의 일원이거나 영향력을 받은 지역이었다. 따라서 터키는 이와 같은 전략적 지역의 출현에 TİKA라는 대외원조기관을 선두로 내세워 해당 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런 측면에서 터키 ODA의 시작은 터키의 전략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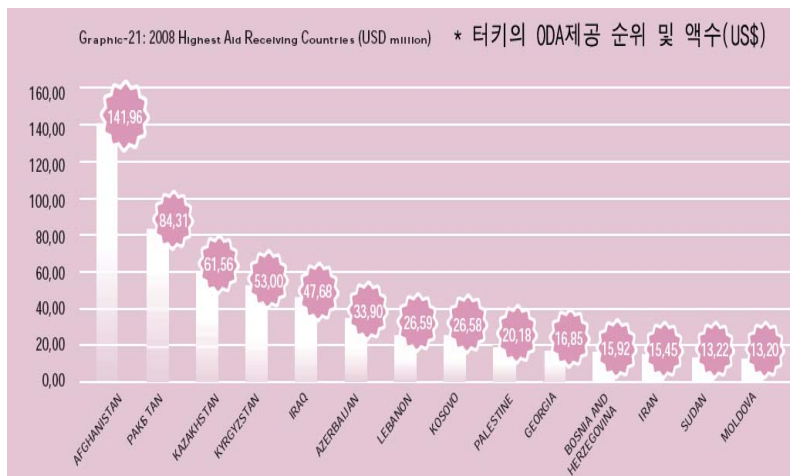


출처: TİKA (2009), 2008 Türkiye Kalkınma Yardımları Raporu.

터키는 1992년 이후 언어적, 민족적으로 가까운 위 지역을 중심으로 양자간 협력협정을 근거로하여 대대적인 ODA를 카프카스, 중앙아시아, 발칸지역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2002년 이후 터키의 신 대중동정책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 되기 시작한 후 부터는 같은 이슬람권인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중동국가들에게도 활발한 ODA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터키는 자국이 설정한 전략적 지역인 중앙아시아, 카프카스, 중동 그리고 발칸과 같은 인접지역에서는 여타 서구 선진국들 보다 많은 ODA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지역에서의 터키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시키고 있다.

2008년 기준 터키는 총 ODA 제공액인 미화 약 7억8천만불(783.36million \$) 중 4억4천만불(445.4million \$)을 중앙아시아-카프카스지역에 제공하였으며 이어 중동지역에 두 번째로 많은 1억 천만불(116.4million \$) 정도를 중동지역에 제공하였다. 즉, 터키는 전체 ODA의 72%를 중동과 중앙아시아-카프카스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2009년 터키의 본격적인 신 대중동 정책이 시작된 후로는 터키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대한 ODA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터키의 ODA 제공 국가 순위



출처: TİKA (2009), 2008 Türkiye Kalkınma Yardımları Raporu.

2008년 터키는 국가재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어 중앙아시아-카프카스지역의 튀르크계 형제국가라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에서 다양한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제 2차 걸프전으로 폐허가 된 이라크와 레바논,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국가재건 사업에도 많은 ODA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터키 ODA의 국가별 배분 현황을 분석해 보면 터키는 ODA 배분에 있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극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대규모의 ODA예산이 터키의 인접지역이자 전략 지역인 중동, 카프카스, 중앙아시아 지역에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별 평균 지원 규모도 일부 전략국가를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터키

가 ODA를 통한 기여외교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음 도표는 터키가 주요 공여국으로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터키가 1위에서 10위 정도의 ODA를 제공하는 나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해당 국가들에서 터키의 위상과 영향력은 다른 어느 서구 국가들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래 예시된 국가들에서는 터키가 주요 우방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표 3〉 터키 ODA가 상위를 차지한 국가들⁷⁾ - 2009년 기준

터키의 ODA 수혜 국가	터키 ODA가 수혜국에서 차지하는 순위
투르크메니스탄	1위
키르기스스탄	1위
사우디아라비아	1위
카자흐스탄	2위
아제르바이잔	3위
리비아	5위
이란	6위
우즈베키스탄	7위
몽골	7위
몰도비아	7위
시리아	8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8위
파키스탄	8위
레바논	8위
우크라이나	8위
마케도니아	9위
그루지야	1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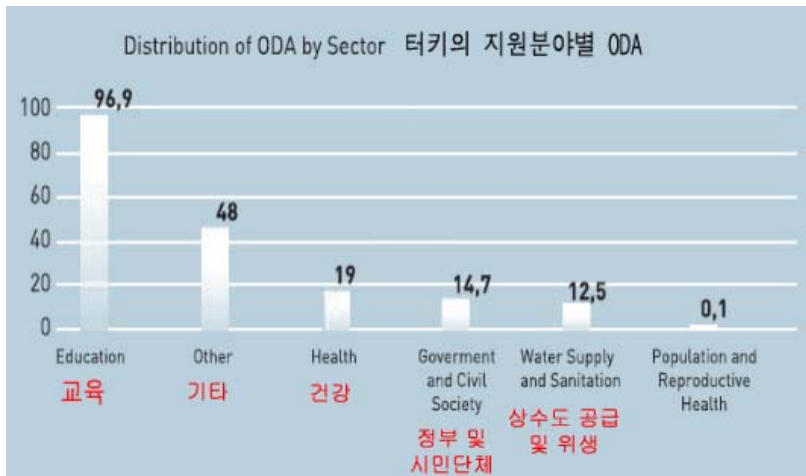
출처: TİKA (2010), 2009 Türkiye Kalkınma Yardımları Raporu.

7) 몰도비아의 경우 튀르크계인 가가우스인들이 거주하는 가가우스 자치공화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튀르크계인 크림 타타르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보스니아와 마케도니아의 경우도 오스만시대에 이슬람화되고 튀르크화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2) 터키 ODA의 내용적 특징

터키의 ODA 지원 분야별 내용적 현황을 분석해 보면 교육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서구적 현대화 모델개발을 한 국가라 할 수 있다. 터키는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완성된 터키식 현대주의와 서구화 모델을 중앙아시아, 중동, 카프카스 등지의 다른 이슬람국가들에게도 전수하고자 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새롭게 독립한 중앙아시아, 카프카스 등지의 국가들 역시 국가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상태여서 자국의 인력양성과 발전능력 배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이슬람 전통을 유지하며 서구식 세속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터키의 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경향이 많다. 터키 또한 오랜 소비에트 통치를 받은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의 신생국가들 그리고 중동과 발칸지역의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무엇보다 교육원조가 이들 국가들에게 발전의 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터키는 1992년부터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 발칸지역에 수십 개의 기초교육기관(초·중등학교)과 고등교육기관(대학)을 설립하고 해당국들의 공무원연수, 전문가 파견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교육 원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한국과 비교한다면 터키만의 몇가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한국형 개발모형 전수라는 모토아래 주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교육 ODA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터키는 일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수혜국에서의 초·중·고등 교육기관 설립과 기존 학교들의 시설보수 그리고 교육 노하우 전수에 집중하고 있다. 터키는 교육ODA 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친 터키적인 세대를 양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인 성과로 보여 줄 수 있는 기술훈련 및 지식 전수보다는 수혜국의 기초교육의 정상화 및 엘리트교육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터키는 공무원 및 실무자 중심의 직업훈련과 연수뿐만 아니라 수혜국의 기초 및 일반교육에 대한 지원에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터키는 92년부터 문화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대 중앙아시아 정책의 큰 틀을 짜고 모든 역량을 이 사업에 집중시켰다(오종진, 2007). 이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는 중앙아시아, 카프카스 그리고 발칸 지역에서 “터키학교”(Turkish School)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ibid.). 교육은 오랫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화과정의 대행자로 간주되어 사회적 정신적 환경을 구축하거나 새롭게 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되어 왔다(Bu 1999; Apple 1996). 터키는 소연방 붕괴 후 설립된 신생국들이 독립한 후 사회 급변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들 신생국들의 사회변화를 친 터키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교육교류정책을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삼아 교육원조를 외교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2009년 터키의 지원분야별 ODA현황을 살펴 보아도 터키의 교육원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TIKa (2010), 2009 Türkiye Kalkınma Yardımları Raporu.

1992년 당시 터키 교육장관은 “학생들은 많은 교육교류 기회를 통해 터키 친구들을 가까이 사귈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점차 공통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들이 교육을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가면 하나의 튀르크 세계를 만드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며 이것은 공통의 목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해 터키 교육 ODA의 목적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Milli Eğitim Bakanlığı, 1993). 1995년도에 한 터키 고위 관료는 “이미 터키는 만 명 정도의 중앙아시아 학생들을 교육시켰고, 이들은 귀국하여 러시아어 구사자 엘리트층을 대체하는 튀르크어 사용 엘리트층을 형성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Hunter, 1996). 터키 교육부는 이러한 다양한 교육교류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992년 5월 교육부 산하 해외교육청을 신설하여 교육 ODA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오종진, 2007; Milli Eğitim Bakanlığı, 1993). 터키 정부는 1992년부터 ‘대학생 교류사업(Bykgrenci Projesi)’이라는 교육 ODA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오늘날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다. 터키 정부는 1992년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 등지의 신생국 학생들을 중심으로 고등교육부분에서 7000여명, 중등교육부분에서 3000명의 학생을 터키로 초청하여 수학하게 했다. “대학생 교류 프로젝트”를 시작한 첫해에 약 만명의 학생들이 터키의 교육ODA 일환으로 터키로 초청되어 새로운 터키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현대식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오종진, 2007).

2008년 터키국제협력 및 발전청(TIKa) 자료에 따르면 터키는 ‘대학생 교류사업’(Büyük Öğrenci Projesi)을 통해 2008년 17,996명의 외국학생을 자국으로 초청되어 유학하고 있으며, 235명의 외국 경찰공무원도 초청되어 자국의 교육기관에서 대테러 및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고, 190명의 중-고등교원들도 터키교육부 주최로 교육연수를 받고 있다(TIKa, 2008). 최근 터키경제가 90년대에 비해 많이 호전되면서 일반학생 뿐만 아니라 ODA수혜국들의 다양한 관료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원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03년 자료에 따르면 터키 교육ODA 사업으로 설립된 일반학교와 대학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 4〉 카프카스, 중앙아시아, 발칸 및 중동지역에서 터키정부 교육 ODA사업으로 설립된 학교와 학생, 교사 수

국가	학교	파견 교사 수	대학교	파견 교수 수
아제르바이잔	18	397	3	102
카자흐스탄	43	85	2	96
키르기스스탄	14	291	2	31
우즈베키스탄	18	210	—	—
투르크메니스탄	22	318	2	70
타지키스탄	6	107	—	—
보스니아	3	50	—	—
이라크	3	30	—	—

출처: Milli Eğitim Bakanlığı, Milli Eğitim Sayısal Veriler 2002-2003 (2003). 자료정리

위 자료는 최근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터키의 최근 교육 ODA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위 도표는 터키 교육ODA 규모와 범위를 가늠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라 판단된다.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터키 경제성장을 고려한다면 위 도표의 수치보다 더 많고 넓은 범위(국가)에서 터키의 교육관련 ODA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Ⅲ. 터키 ODA 관련 정부 및 민간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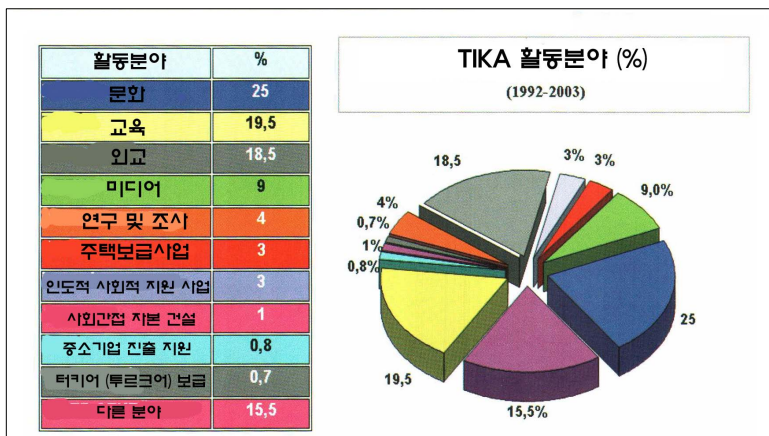
앞서 언급했듯이 터키의 본격적인 ODA는 1992년 TIKA가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3대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26개 사무소를 유지하고 있는 TIKA는 설립 초기에 중앙아시아 및 소련 연방 내 투르크 국가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자 시작되었으나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동유럽, 발칸지역 그리고 중동지역까지 그 지원을 확대한 상태이다. 1997년 터키정부의 ODA가 기여외교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기 위해 TIKA는 총리실 산하에서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이전되게 된다. 이후 터키는 좀 더 체계적인 ODA를 통한 외교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된다. 터키의 종합적인 ODA 계획과 결과 보고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국가기획부(State Planning Organization)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으나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국가 통계청이(Turkish Statistical Institute) 중심이 되어 취합되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TIKA가 터키의 모든 ODA 현황을 파악하고 조율하고 있다.



출처: TİKA (2010), 2009 Türkiye Kalkınma Yardımları Raporu.

최근 TİKA는 ODA 사업 뿐만 아니라 상대국가들과의 사회, 문화, 교육 교류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 상대국들의 경제 발전 및 개발 사업에도 자문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직접 사업에 투자하거나 공동프로젝트로 다양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TİKA는 한국의 KOICA(국제협력단),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리고 재외동포재단과 유사한 업무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İKA는 26개소의 해외사무소를 통해 현지 ODA 수혜국들의 요구와 필요사업을 수집-발굴하고 있어 현지 중심의 ODA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⁸⁾ 1992년 설립이후 2003년까지의 TİKA의 활동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도표에서처럼, TİKA 역시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많은 원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앞서 언급한 터키 ODA의 분야별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TİKA 활동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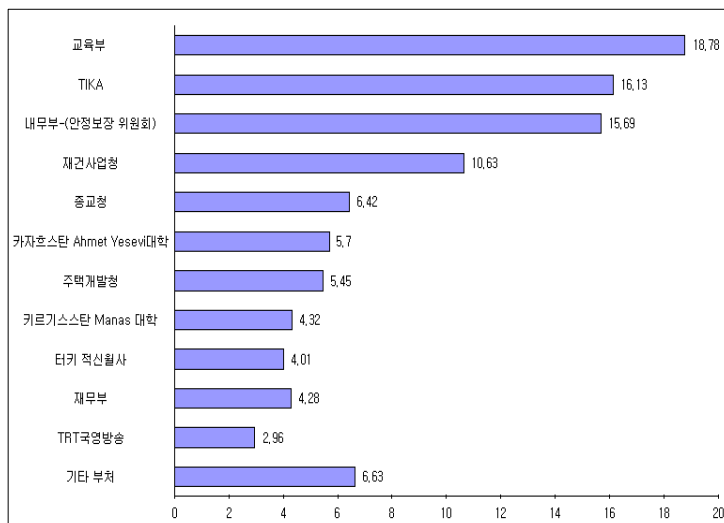


출처: TİKA, TİKA Faaliyet Raporu 2004 (Ankara: 2004)

8) 인터뷰, 우즈베키스탄 TİKA 소장, Faruk Uysal, 2005년, 7월. in (Chong Jin OH, 2006)

2005년부터 터키 ODA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TIKA와 함께 가장 많은 ODA사업을 펼치는 정부 부처는 교육부이다. 터키 ODA의 분야별 특징이 교육 ODA에 있는 만큼 교육관련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가장 많은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터키 정부가 현지 수혜국들에 설립한 종합대학들 역시 - 카자흐스탄의 Ahmet Yesevi 대학, 키르기스스탄의 Manas 대학 등 - 교육 ODA 기관으로 활동 하고 있다. 터키의 내무부 산하 ‘안전보장 위원회’와 재건사업청은 국제적 자연재해 및 재난에 ODA를 제공하는 주무 부처로 활동하고 있어 역시 많은 ODA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아래 도표에서처럼, 터키는 국제적 재난과 재건 사업에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가 적신월사(Turkish Red Crescent Society) 뿐만이 아니라 내무부 산하 ‘안전보장 위원회’나 재건사업청과 같은 별도의 정부기관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터키는 주변 인접국들이 - 이라크,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 많은 국제분쟁과 전쟁 지역으로 되어 있어 이들 지역에서의 재건사업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위해 이와 관련된 독립적인 정부기관을 설립한 상태이다. 이들 정부기관들은 수혜국들의 다양한 국가 재건사업에서 물질적, 기술적, 인적 원조를 하고 있다.

2008년 터키정부 ODA 제공 상위 기관



출처 : TIKA (2009), 2008 Türkiye Kalkınma Yardımları Rapo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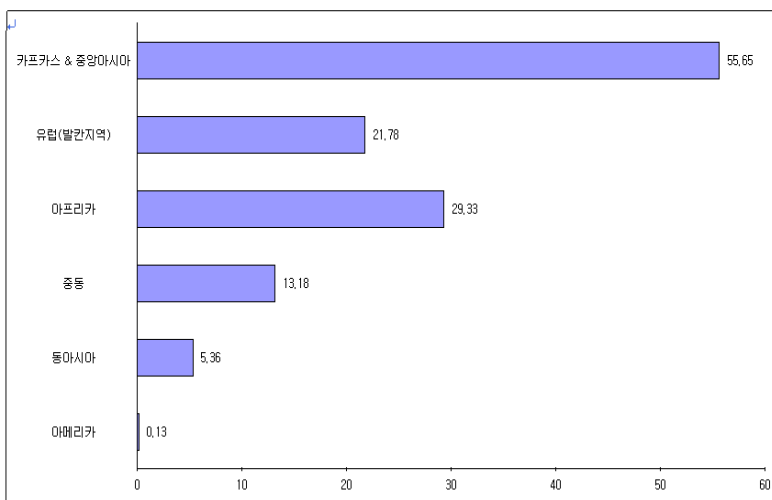
언급한 이들 정부기관들 외에 다른 주요 ODA제공 터키 정부부처는 터키 종교청과 주택개발청, 그리고 TRT 국영방송 정도이다. 터키 종교청은 수혜국들에서의 사원신축 또는 역사적인 사원 및 종교적 유적의 복원사업 분야에 ODA를 제공 하고 있으며, TRT국영방송의 경우 방송 기술 및 인적 지원은 물론 터키의 선진화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ODA 지원들은 수혜국에서의 소위 터키문화(‘터류’, Turkish Wave)를 확산하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 특히 터키 ODA를 제공 받는 대부분의 수혜국들은 같은 터키계 튀르크민족이거나 이슬람문화권인 관계로 다른

어느 서방국가의 미디어 콘텐츠보다 거부감 없이 용이하게 수혜국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으며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이처럼, 터키 정부의 ODA제공 부처와 특징을 분석해 보면 터키 정부의 ODA정책은 매우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선택과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터키는 단기적으로는 수혜국들의 이해에 부합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당지역에서의 세력균형과 터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ODA를 통한 기여외교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터키는 다른 서방국가들이나 국제기구처럼 인권문제나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ODA 정책을 전개하고 있어, 수혜국들이 터키 ODA를 거부감 없이 받아 들여 쌍방이 윈-윈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만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서방국가는 터키가 ODA정책을 펼치면서 인권증진과 같은 수혜국의 사회적 이해 반영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OECD, 2008).

터키 정부기관 뿐만이 아니라 터키의 다양한 NGO단체들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ODA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2005년 터키 NGO 단체들의 ODA규모가 미화 56.7백만불 규모였으나 2008년에는 125.5백만불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터키의 ODA에서 NGO단체들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터키 NGO 단체들의 ODA 역시 터키정부의 ODA 정책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NGO 단체들의 ODA 지원분야와 배분 지역들이 터키정부의 ODA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터키 NGO 단체들의 ODA 중 약 45% 정도가 교육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ODA 분배지역 역시 중앙아시아, 카프카스, 그리고 중동지역과 발칸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OECD, 2008). 즉 터키 NGO 단체들의 ODA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터키 정부와 NGO 단체들의 ODA 지원 분야 및 지원지역이 중복되면서 그 지원 규모와 비중이 확대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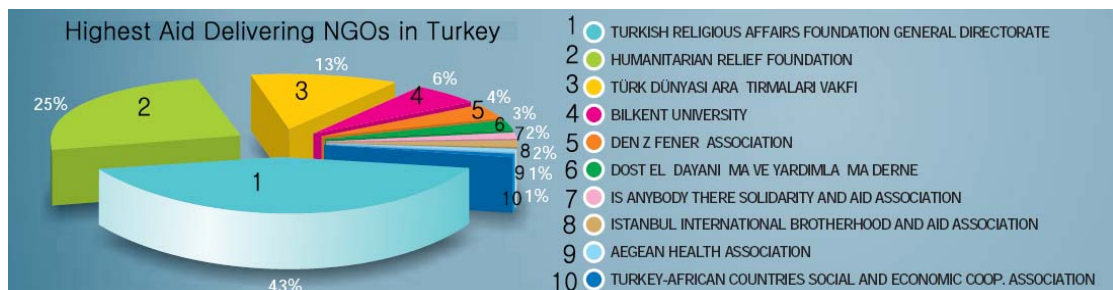
터키 NGO 단체들의 ODA 제공 지역별 현황 (2009)



출처 : TIKA (2010), 2009 Türkiye Kalkınma Yardımları Raporu. 자료정리

터키 NGO단체들의 교육 ODA사업은 수혜국 초·중등 학생들의 터키 조기 유학과 대학·대학원 학생들의 터키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수학과 같은 인적 교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수혜국들의 교육시설 보수 및 증설과 같은 하드웨어 사업과 일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해당 수혜국 국민들에게 ‘터키의 혜택’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 주고 있다. 특히 정부의 교육 ODA사업 분야와도 중복되어 전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 이와 같은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와 연계된 NGO단체들의 교육 ODA를 통해 매년 약 2만 명 이상의 수혜국 학생들이 터키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약 1500~2000여명의 학생들이 수혜국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있다.⁹⁾ 터키의 이와 같은 교육 ODA는 국가 재건이나 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차세대 인재 양성이라는 큰 당면 과제를 해결 줄 뿐만 아니라 향후 친 터키적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공여국과 수혜국 쌍방이 윈-윈 할 수 있는 협력모델이라 할 수 있다. 단기적 이익 추구보다는 일반교육 분야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터키 교육 ODA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아래 도표는 터키에서 ODA를 제공하는 NGO단체들이 다. 주로 종교, 교육, 사회, 인도적 지원을 하는 터키 NGO 단체들이 ODA에 참여하고 있다.

터키 ODA제공 상위 NGO 단체



출처 : TİKA (2010), 2009 Türkiye Kalkınma Yardımları Raporu.

터키 정부는 다양한 정부 및 NGO 단체들의 ODA 사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ODA 현황파악 시스템을 2008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터키는 ODA를 좀 더 유용한 외교정책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KAP(Resmi Kalkınma Yardımları KAPASİTE programı)이라는 터키 정부의 ‘ODA 전자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터키는 터키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정부 및 NGO단체들의 다양한 ODA 활동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각종 기관 및 단체들의 ODA 지원분야 및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구축함과 동시에 시민사회와 협력 등 제반사항을 제도화했다고 할 수 있다. 터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NGO 단체들의 ODA활동을 파악하고 지원하는데도 KA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터키의 ODA를 한 단계 상승시켰다는 좋은 내부 평가를 하고 있다.¹⁰⁾

9) 주한 이스탄불 문화원장, 주한 터키 대사관 교육관 전화 인터뷰, 2011년 3월 18일.

10) <http://kap.tika.gov.tr/kap/genelbilgi>, 2011년 3월20일 접속

민간 NGO ODA기관 중 교육ODA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빌켄트 대학교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덕분에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터키가 이와 같은 ‘ODA전자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의 개발원조 인적기반 강화와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한국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터키가 KAP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의 ODA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물론 민-관협력을 통한 ODA 효과를 제고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ODA전자평가 프로그램’ 또한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사용자의 편의 뿐만 아니라 원조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신생 NGO 단체 또한 쉽게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여 ODA단체로 등록 할 수 있게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ODA의 국민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터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쉽게 터키에서의 ODA관련 단체를 발굴하고 시민사회의 ODA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터키의 KAP프로그램 (ODA 전자평가 프로그램)

Türkiye Resmi Kalkınma Yardımları KAPASİTE Programı

KAYITLI ÜYE GİRİŞİ

Ülke: Türkiye

Kurum: ADALET BAKANLIĞI

* Kurum Kodu:

* Kullanıcı Adı:

* Şifre:

* Güvenlik Kodu: 744

giris

Sisteme daha önceden üye olduysanız; Kayıtlı Üye Girişi bağlantısından, Ülkenizi ve Kurumunuzu seçip, Kurum Kodu, Kullanıcı Adı, Şifrenizi ve Resimdeki Güvenlik Kodunu girerek sisteme giriş yapabilirsiniz.

Sisteme yeni üye kaydı yapmak için; Yeni Üye Kayıt bağlantısından açılan formdaki alanları doldurarak Sisteme Kayıt yapabilirsiniz.

İRTİBAT:

출처 : <http://kap.tika.gov.tr/kap>

IV. 나가는 말

본 글은 중동지역 국가들 중 최근 가장 체계적이며 활발한 ODA를 하고 있는 터키를 중심으로 중동지역의 ODA정책과 기여외교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동 산유국들의 ODA 경우 석유가격, 원유생산량, 역내 정치상황에 따른 변동이 심한편으로 지속적인 정책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또한 종교적인 목적이 내재되어 이슬람교리 강화가 수혜국의 주요 선정요소로 작용하는 등, 중동 산유국들의 ODA에는 여러 정책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글은 여러 상황이 한국과 유사한 터키를 중심으로 중동지역의 ODA정책을 살펴보았다.

터키는 1991년 소연방 붕괴 이후 본격적인 ODA 공여국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종적,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인접한 중앙아시아, 발칸, 카프카스 지역의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ODA를 통한 기여외교를 펼쳤다. 터키는 이들 지역에서의 역사적, 민족적, 종교적 토대를 기반으로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증진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ODA 정책을 이용했으며, 이를 통해 역내 국가들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며 자국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터키는 1990년대 이후 전방위적 지원정책을 펼쳐 해당지역에서의 터키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시켜 현재, 중앙아시아, 카프카스, 발칸지역의 많은 신생국가들로 부터 주요 동맹국 및 협력자로 인식되고 있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터키 정부와 NGO 단체들의 ODA 특징을 분석하면 터키 정부의 ODA정책은 매우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터키 ODA의 시작은 터키의 전략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과 문화라는 분야에 집중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ODA의 국가별 배분현황에서 소규모 ODA예산을 많은 국가에 분산지원 하고 있다고 지적되는 것과는 대비되는 점이라 하겠다(이계우, 박지훈 2007). 2000년 이후 한국의 평균 ODA지원국가수가 120개국을 초과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 하겠다. 터키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통해 ODA 분배지역과 ODA분야를 명확히 함으로써 터키 ODA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터키의 대외원조는 정치-외교적인 성격이 비교적 명확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터키의 ODA 지원정책은 다른 서방국가들이나 국제기구들과는 다르게 수혜국들이 민감해 하는 인권문제나 내부 정치문제 등에 관해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전개되어 수혜국들이 터키 ODA를 비교적 거부감 없이 쉽게 수용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터키와 수혜국들은 서로 윈-윈하는 경제, 사회-문화협력 체제를 비교적 쉽게 이루었다.

90년 초반 터키국제협력 및 발전청(TIKA)이 터키 주요 정부기관으로 설립되면서 ODA 정책에 대한 큰 전환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터키는 TIKA를 통해 체계적인 ODA 정책을 전개하였으며 ODA와 관련된 각 부처 및 기관들을 유기적관계로 구축할 수 있었다. TIKA가 터키의 모든 ODA현황을 파악하고 조율하면서 터키 원조외교의 효과성은 상당히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TIKA가 구축한 KAP(Resmi Kalkınma Yardımları KAPASİTE programı)이라는 ‘ODA 전자평가 프로그램’은 터키정부의 ODA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참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할 만하다.

결국 터키의 ODA 정책은 TIKA가 ODA 컨트롤타워로 설립되면서 대외원조에 대한 제도화와 기본 원칙이 설정되었고 나아가 시민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장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10년 DAC 가입을 계기로 ODA를 통한 한국의 국격 제고 및 ODA제도 선진화 등과 같은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ODA는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흡한 점이 많다고 평가된다.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분절화된 집행체제로 인한 원조효과성 저하, 지나치게 높은 구속성원조,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 부재 등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OECD DAC, 2008). 이러한 측면에서 본 글은 터키의 사례를 ODA연구의 경험적 사례로 끌어 들임으로써 최근 신흥 공여국으로 공세적 원조를 구상하고 있는 한국의 ODA정책을 평가하고 발전시키는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끝으로 ODA를 통한 자원외교, 시장창출 등의 현실주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인도주의적, 이상주의적 목적의 ODA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터키의 교육분야에 집중된 ODA 정책은 이러한 목적을 어느 정도 반영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터키는 단기성 경제적 지원보다는 수혜국들이 국가발전에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 차원의 국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ODA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겠다. 터키는 국제사회의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추구하면서 터키만의 축적된 경험과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터키식 원조개념과 모델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원조의 역사는 짧지만 터키는 기존의 공여국들이 제시하는 보편주의원칙과 터키 특유의 다양한 배경을 기초로 하는 터키만의 ODA 개발 전략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터키를 포함한 주요 중동 산유국들은 최근 중동 지역 내 공적원조를 다자간 협력 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터키와 다른 중동 산유국들의 대외원조는 대부분 양자간 협력으로 진행되어 선진국의 ODA에 비해 다자간 협력 비중이 낮았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이슬람회의 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의 의장을 맡고 있는 터키를 중심으로 최근 중동 지역 내 공적원조 다자간 협력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의 민주화 운동으로 중동 지역 내 터키의 역할과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상승한 만큼 중동지역 내 분위기도 좋은 편이다. 또한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재건의 필요성이 있는 중동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 중동 지역 내 다자간 공적원조 협력체제 구축은 큰 탄력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중동 지역의 다자간 공적원조 협력기관인 아랍펀드(Arab Fund), OPEC국제개발기금(OFID), 아랍통화기금(Arab Monetary Fund),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등이 중동지역 ODA 다자간 협력기구로 조명을 받고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오종진 (2007). “터키의 교육교류를 통한 대 중앙아시아 정책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 17-2집.

이계우, 박지훈 (2007).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20년 평가“, 한국개발연구, 2호.

이태주 (2003). “한국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선진국 만들기와 발전담론”, 비교문화연구, 9-1권.

외교통상부 (2008). “정부의 기여외교와 ODA 정책방향”, 경실련 ODA Watch 제3차 정책포럼, 2008년 6월 19일.

삼성경제연구소 (2009). “국격 제고를 위한 ODA 정책”, CEO Information, 11월11일, 제730호.

* 인터넷 참고자료 출처

<http://www.tika.gov.tr> - 터키국제협력 및 발전청

<http://www.meb.gov.tr> - 터키 교육부

<http://www.mfa.gov.tr> - 터키 외무부

http://www.sfd.gov.sa/english/basic_info.htm - 사우디펀드

<http://www.globalhumanitarianassistance.org/countryprofile/turkey>

<http://www.invest.gov.tr/en-US/infocenter/news/Pages/140111-world-bank-turkey-growth-rate-world-average.aspx>

* 인터넷 신문

“Türkiye`den 5,2 milyar dolar kalkınma yardımı”, Yatırım Finans, 2010.8.10,

http://www.yatirimfinans.com/haberdetay.asp?news_id=260

“136 Ülkeye ‘El’ Uzattık, 3 Milyar Dolar Kalkınma Yardımı Verdik”, Son Dakika, 2009.8.9,

<http://www1.sondakika.com/haber-136-ulkeye-el-uzattik-3-milyar-dolar-kalkinma/>

Cevdet Yılmaz “Bakan Dr. Cevdet Yılmaz’ın Açılış Konuşması: Binyıl Kalkınma hedefleri +10 Bölgesel Konferansı”, 2010.8.9

www.mfa.gov.tr/data/Kutuphane/yayinlar/.../Musa%20KULAKLIKAYA.pdf, 2010.8.9

“Türkiye, Kalkınma Yardımında Oecd ve AB’de Öne Çıktı, Rakam 780 Milyon Doları Buldu”,

Haberler, 2010, 8.10,
<http://www.haberler.com/turkiye-kalkinma-yardiminda-oecd-ve-ab-de-one-2096317-haberi/2010.8.9>

2. 국외문헌

- Berthelemy J. and A. Tichit (2002). “Bilateral Donors’ Aid Allocation Decisions: a Three- dimensional Panel Analysis”, *Wider Discussion Paper 2002/123*.
- Bu, Liping. (1999) “Educational Exchange and Cultural Diplomacy in the Cold War”, *Journal of American Studies*, vol.33, no.3
- Demir, Cennet Engin, Ayse Balci, and Fusun Akkok (2000). “The Role of Turkish Schools in the educational system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Central Asian Countries”, *Central Asian Survey*, vol.19, no1.
- Espen Villanger. (2007). CMI Report Arab Foreign Aid: Disbursement Patterns, Aid Policies and Movtives. Bergen, CMI.
- Hunter, Shireen T. (1996) *Central Asia Since Independence*,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Katada, S.N (2002). “Japan’s two-track aid approach: the forces behind competing triads”, *Asian Survey*, vol.42.
- Kuramoto, Yukikoi (2007). “Japan’s Foreign Aid Policy as a Vital Foreign Policy: Did Japan Achieve its National Interests?”, *Paper presented for the 48th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in Chicago*.
- Maizels A. and M. K. Nisanke (1984). “Motivation for Aid to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vol.12, no.9.
- Milli Eğitim Bakanlığı (2003). *Milli Eğitim Sayısal Veriler 2002-2003*, Ankara: Milli Eğitim Bakanlığı Basımevi.
- Milli Eğitim Bakanlığı. (1993). *Türk Cumhuriyetleri ve Türk Topluluklarına Yönelik Hizmetler 1992-1993*, Ankara: Milli Eğitim Bakanlığı Basımevi.
- Miyashita, A (1999). “Gaiatsu and Japan’s foreign aid: rethinking the reactive-proactive debat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43.
- OECD DAC(2008). “Korea Special Review”
- OECD(2008). “Resmi Kalkınma Yardımı”, in OECD Çevresel Performansı İncelemeleri: Türkiye, OECD, 2008, p.238-242.

- Oh, Chong Jin (2006). *Abiska Turks and Koreans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Making of Diaspora Identity and Cultur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Ankara.
- Sahin, Mustafa(2009). “Turkis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gency and South-South Rel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UNCTAD, 2009, Feb.4.
- TIKA(2008), *2007 Türkiye Kalkınma Yardımları Raporu*, 2008
- TIKA(2009), *2008 Türkiye Kalkınma Yardımları Raporu*, 2009
- TIKA(2010). *2009 Türkiye Kalkınma Yardımları Raporu*, 2010
- Tuman J. P. and J. R. Strand (2007). “The role of mercantilism, humanitarisms and gaiatsu in Japan’s ODA programme in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6. no.1.
- USAID(2002). *Foreign Aid in the National Interest*,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ashington, 2002.